

‘사랑의 열매’ 모금액 지역 어려운 이웃에 큰 힘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지난 1일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출범식에서 사랑의 온도 올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랑의 온도는 105억5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내년 1월31일까지 운영된다.

전남도 제공

다양한 나눔문화 확산

▶ 전남 사랑의 열매는 이 점에 착안해 ‘소다수 캠페인’, ‘그린열매 나눔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 회장은 “2019년 처음으로 추진된 ‘소다수 캠페인’은 ‘소중한 다수의 기부’라는 뜻으로 ‘생활속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캠페인이다”며 “개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착한나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착한가정, 자영업자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가게, 직장인들이 매달 급여에서 일부를 기부하여 참여하는 착한일터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최근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하는 ‘착한펫’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다.

노 회장은 “그린열매 나눔캠페인’은 미래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자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기후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며 “기업은 탄소중립 활동, 폭염 및 한파 등 대비한 취약계층 주거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개인은 밀반찬 나눔 다화용기 사용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1년 이내 100만원 이상 기부 약정 또는 일시 기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나눔리더’와 5년 이내 1억원 이상을 기부하는 ‘아너 소사이터티’ 모집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노 회장은 “현재 전남은 320명의 나눔리더와 150명의 아너 소사이터티 회원이 있다”며 “온라인, SNS 등을 통한 홍보로 연말에도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지역민의 작은 실천이 ‘가치 있는’ 전남을 만들 수 있다며 나눔 참여를 독려했다. 노 회장은 “모금된 성금은 취약계층의 생계·의료비 긴급지원, 사회복지시설·기관의 공모를 통한 신청사업, 지역사회 복지이슈를 파악해 지원하는 기획사업,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권기금사업,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물품사업 등 다양한 배분사업으로 전남 사회적 약자에 지원되고 있다”며 “사랑의열매를 패용하는 것은 주변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배려의 표시다. 올 한해도 사랑의 열매를 달고 따뜻한 전남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주거약자 대상 ‘희망주택 리모델링’ 아동복지시설에 ‘희망스타트캠프’ 장애인 돌봄서비스·교육·체험 지원 “시설·장비 노후화 외부 도움 절실”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의 ‘희망2024나눔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캠페인 활동으로 모인 모금액이 광주·전남 어려운 이웃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모금액은 각 기관으로 배분된 뒤 도움이 필요한 주거약자,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쓰이고 있다. 배분된 성금 덕분에 도움을 받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기관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고립된 위기가정에 도움

광주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남구 복지정책과 연계해 매년 공동모금회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관내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 생활 및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아동에 소원편지를 받아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전달하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사업,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성장을 도모하고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캠프’ 사업 등을 진행했다.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2013년부터 이어오는 사업으로 매년 20여세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500만원을 지원받아 주거약자 20세대 환경을 개선했으며 지난 11월 희망주택 200호점까지 리모델링 지원을 마무리 했다.

주거약자 생활과 주거환경이 개선되자 주거약자들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의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선미 광주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고립가구 등이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정부 정책과 제도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 지역에서 사랑과 관심, 나눔을 통해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돌봄서비스·교육·체험활동 지원

사랑의열매 모금액은 장애인들의 돌봄 서비스와 교육 및 체험 활동에도 배분되고 있다.

목포장애인요양원은 거주시설 내 장애인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돌봄과 자립 콘텐츠 개발 사업인 ‘인플루언서가 된 돌봄이와 자립이!’, 시설 내 조리실 환경개선을 위한 ‘구해줘! 소셜 홈즈’ 등을 추진했다.

올 모금회 배분사업은 ‘자립과 돌봄’ 양방향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사회와 연계·공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종증 장애인에게는 돌봄 서비스를, 중증증 장애인에게는 자립교육과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기관에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김진 목포장애인요양원장은 “요양원이 설립된 지 30년째라서 각종 장비들이 노후돼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모금회 등 외부지원이 없다면 시설 내 긴급공사가 이뤄질 수 없어 사랑의 열매 등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식개선 영화 제작 지원

배분금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방식 변화를 위한 영화 제작도 진행되고 있다.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은 2023년 사업으로 2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전문 영화 감독을 섭외해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인식개선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섰다. 이번 영화 제작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직접 주제선정, 시나리오 제작, 연기, 촬영, 편집까지 함께 참여했다.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던 장애인식개선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남구장애인복지관은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영화를 기획·제작했다. 예산 문제로 고민하던 중 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선정으로 향상된 장애인식개선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

국민우 광주남구장애인복지관 팀장은 “복지현장 속 기관들이 다양한 복지 증진을 위해 획기적인 활동을 고민하고 기획하고 있다”며 “활동을 위해서는 물적·인적 자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나눔 문화가 확산돼 다양한 복지현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상이 인턴기자 sangajeong@jnilbo.com

다양한 업종의 창업준비 모두!

제9회제일 창업박람회 IN광주

12.14(목) - 16(토)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전등록하면 무료입장!

NAVER | 제일좋은전람

검색창에 제일좋은전람을 검색해보세요!

다양한업종의프랜차이즈를 만나보세요!



참가문의 | T.02-856-1402 E. goodfair@yesexpo.co.kr

제일좋은전람